

대한양계협회소식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종계산업 안정화대책 방안모색



지난 6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세미 산업이 산업적 규모로 시장 정착됨에도 불구하고 모계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이 없는 점을 비롯, 이에 대한 종계산업 안정화대책을 위해 백세미의 모계를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및 종계 및 부화업 등록·준수사항을 미이행시 과태금 현실화, 매계군마다 입식되는 종계에 대한 일변검정 수행 등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하였다. 또한 한-미 FTA 타결관련 양계산업 보완대책 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와 더불어 한-EU FTA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

루어졌다.

검정위원회 분석자료 각종매체 홍보게재 할 계획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2007 제2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 78회 육용검정계 최종성적과 제 40회 산란검정계 중간성적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가졌다.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준육용계 검정주령을 12주령에서 10주령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검정성적 분석자료에 대해 축산관련 신문 및 잡지에 홍보·게재하여 종계검정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검정소의 현부지 매각 부진과 정부예산을 통한 거액 이 전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정부의 실정에 따라 현위치에서 시설보완(신축) 방향으로 검토를 제

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신축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계란유통활성화방안좌담회 소비홍보활동 필요성 강조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유통위원장, 롯데마트 박효상 MD가 참석한 가운데 계란유통활성화방안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년간 418천수로 산란종계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사육수수조절에 들어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속적인 수수증가가 이어지면서 금년부터는 쿼터제를 파기하고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환우계군의 증가 및 사육수수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포화, 한미-FTA 타결로 인해 국내 양계산업의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마스크의 무분별한 방송과 함께 최근 사료값까지 덩달아 인상되면서 최근 몇 년간 비취볼 때 현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전했다.

종합해보면, 사육수수조절, 환우계군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에 비해 생산물량이 많다는 문제점이 파악됐고, 이로 인해 덤핑판매로 인한 미기

상품으로 전략하면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취합되었다. 신선하고 믿음가는 계란을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계란의 소비를 위해 홍보활동이 적극 필요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란게임의자조금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82페이지 참고)

종계 DB사업 출장자 회의 상황보고 및 향후 종계DB사업 계획 설명



종계DB사업의 상황보고 및 보완대책협의를 위해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종계DB사업 출장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토의안건으로 종계DB 출장조사시 문제점 파악 및 수정사항, 향후 종계DB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종계장 방문시 행동요령으로 질병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방역복 등 착용하고, 향후 및 지속적인 종계DB사업 설명으로 농장관리자와 협조를 꾀할 것을 요하였다. 또한 질병발생시 종계장출장방문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종계농가의 직접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농장의 성적을 농장에서 직접 전산입력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기본적인 종계관련자료는 지난 1월 19일부터 본회 홈페이지

지를 통해 생존율, 산란율 및 표준산란율 대비 실제 산란율을 공개하면서 향후 종란 및 실용계 병아리 예상생산량, 병아리 생산수수 예측가능 전망에 대해 공개할 것을 밝혔다.

전라도 지역에서 종계 DB업무를 맡고 있는 이희완 전북지회 상무는 종계 DB사업에 대한 효과 및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DB사업 정착을 위해 농가에 선물 전달 등 농가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모색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긴급 소위원회 장기불황 대책논의



양계산업 전반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긴급 종계부화분과 소위원회가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종계 수급동향 및 종계생산성 협의와 양계산물의 가격하락과 종계부화업계 장기 불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불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계열업체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과 대안을 마련을 위해 상황별로 유동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종계부화 관리 지침서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HACCP을 대비하여 사전에 지침안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계 감축방안운동 결의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지난 산란종계대표자 회의 결과 산란계자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라디오광고 등 계란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표하였다. 또한 산란계 사육수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과증되면서 채란인들 자체적으로 경제주령을 초과한 노계군 도태를 유도하는 산란계 감축방안운동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전국 3만수 이상 산란계농가에 산란노계도태 감축 촉구문을 발송하여 감축운동을 벌일 것을 꾀하였다.

[지부소식]

아산산란계지부 설립

아산산란계지부(지부장 차진우)가 지난 12일



아산시 둔포면 소재 둔포농협 및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설립 및 헌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둔포농협에서 개최된 지부설립 및 취임식에서는 대한양계협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현광래 대전충남양계조합장, 아산시 박종원 산업경제국장 최성천 본회 이사 등 외부인사는 물론 회원 및 관련인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차진우 신임 지부장은 “농축산 관련 산업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아산 지역 양계인들의 결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양계 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 지부장은 또 “충남 지역 축산 관련 기관 단체간 상호 정보 교류는 물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으로 한미 FTA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산란계지부는 지난 5월 14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25일 34명의 회원이 모여 지부설립에 동의하면서 6월 18일 대한양계협회로부터 최종 지부설립 인가를 받았다.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산산란계지부는 120만수의 사육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1년 사료소비량만 해도 4,320톤에 달한다.

지부장 : 차진우

총 무 : 장석기

재 무 : 이응철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7/2 친환경농업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 7/3 좋은아침모임 제 43차 현지 세미나
- 7/5 농축산단체 농정현안 간담회
- 7/5 긴급 종계부화분과 소위원회
- 7/5 채란분과위원회
- 7/6 국가가축개량기관 간담회
- 7/7 편집위원회
- 7/9 한EU 2차 농업협상 등 준비 워크샵
- 7/19 제2차 축단협 대표자회의
- 7/11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 7/11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표자 만찬
- 7/12 아산채란지부 설립 및 취임식
- 7/12 검정위원회
- 7/14 FTA 이후 농협개선 과제 토론회
- 7/18 계란유통 활성화 방안 좌담회
- 7/18 농대위 집행위 회의
- 7/18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 창립식
- 7/18 FTA에 대응한 축산물 브랜드 발전 전략 토론회